



공감하고 싶지만 하나를 얻고 열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그의 주장에 담겨있음을 보게 된다.

마무리하며

하나님은 육신의 가계를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혈통을 중요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삼아주시며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갈 3:28~29 참조).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가계에 매인 분이 아니셨다. 예수님의 가계에도 시아버지와외의 성관계로 아들을 낳은 다말과 이방 여인 룻도 들어가고 있으며 남편 몰래 외도를 한 밧세바도 악한 왕 르호보암도 들어 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들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마 3:9b)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조상과

후손 사이의 관계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 하셨다. 또한 자신을 미쳤다고 불들라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라고 재해석하셨다(마 12:50). 바울의 경우에도 육신으로는 “팔레스타인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자랑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면서(빌 3:5, 8b 참조) 육신적 가계의 의미를 중요시하지 않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치 말게”(딤후 1:4) 경고하며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딤후 3:9)라고 가계와 족보에 대한 집착을 경고했다.

심판의 주체도 하나님이며 복을 주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과학적인 치료책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질병도 치유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기도한다고

주(註)

13. ‘내적 치유 임상경험 (1999년 11월 25일 현재 그룹 치유 82회 차 1,225명)을 통해 얻은 잠정적 결론은 대부분 가계에 흐르는 대물림되는 속박과 저주가 있으며 가계치유사역을 통해 풀리지 않은 속제와 속박들이 끊어졌다는 사실이다’(김중주의 글, 10: “말씀은 풀자의 것임”)라고 표현하는 김중주의 표현에 대해서는 “말씀 풀자는 우려를 표명하고 싶다. 가정사역의 풀 속에서 그룹치유에 참여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 가계에 흐르는 속박과 저주가 있었고 가계치유사역을 통해 그 저주가 끊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의 병리성을 가계저주론의 풀 속에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4. 김영우, 『김영우와 함께 하는 전생여행』(정신세계사, 1996). 이 책은 출간된 지 약 5개월만에 10쇄를 돌파하며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다. 그는 “전생은 존재한다. 그리고 기억할 수도 있다. 이유없는 질병과 정서 장애는 많은 경우 전생에 그 원인이 있고,

그 전생을 기억하면 치유된다”라고 주장하는 그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내에 몇 안되는 최면요법의 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국내 최초로 전생회행요법을 시행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선구자적 의뢰인이다”라고 책표지말을 그를 소개하였다. 형태는 다르지만 가계치유론과 전생요법 심드롬은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다. 그가 영향을 받았던 책은 브라이언 와이스의 『전생요법』이었다(김철호 역, 정신세계사, 1995). 와이스의 번역서 표지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와이스 박사는 이 전생요법을 통해 만성 스트레스, 피해망상, 고소 공포증, 우울증, 강박증, 알코올 중독 등 중의 정신적 증상뿐만 아니라 선천성 비만, 관절염, 고혈압, 위궤양, 만성 두통, 알레르기, 천식, 유방암 등, 난치 또는 불치로 알려진 각종 신체 질병까지 치유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의 책은 바로 그의 치료 사례들이 담긴 생생한 임상 기록이다.” 이같은 임상적 효과는 가계치유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상적